

12. Van der Walt, b.j., *Contemporary Rearch on the sixteenth Century Reformation*, Potchefstroom, S.Africa;Potchefstroom Univ for C H.E. 1970

13. Vos, G., *Dogmatiek van G. Vos*(Deel II), Grand Rapids, Michigan 1910

2) 정기 간행물 및 사전류

14.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연구(1) 교회문제연구 제1집 고려신학대학 부설 교회문제연구소편 1979

15. Clouse, R.C., 'Anabaptist' i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Gen. Ed.:J.D.Douglas), Grand Rapids, Michigan;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4

16. Van Genderen,J., 'Verbondstheologie-Vroegeren nu' in *Rondom het Woord*, Theologische Etherleergang van de NCRV, 17e jaar gang nr.1. feb. 1975

17. Kinder,E., 'Sakrament' in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3te) (Hrsg.K.Gallig) Tübingen;J.C.M.Mohr, 1961

18. Lillback, P.A., 'Ursinus' development of the covenant of creation:A debt to Melanchthon or Calvin' in *Th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ed.:W.R.Godfrey), Philadelphia;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Spring 1981

19. Polman, A.D.R., 'Verbond' and 'Sacfament' in *Christelijke Encyclopedie*(2e) Band IV, (red.:F.W.Grosheide en G.P. van Itterzon), Kampen;J.H.Kok, 1961

20. Wallace, R.S., 'Sacrament' in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21. Willems, B.A., 'De christelijke interpretatie van doop en kinderdoop' in *Tijdschrift voor Theologie*(Hoofdred.:E. Schillebeeckx) 7e jaargang, Nijmegen;196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 35장에 대한 평가

신 득 일
(Th. M., 화란유학증, 교의학)

목	차
I. 문제제기	3) 제34장의 특징
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4, 35장이 작성된 배경과 경위	2.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
I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4, 35장에 대한 평가	1) 변경된 사항
1.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2) 제35장의 내용 분석
1) 제34장의 내용 분석	3) 제35장에 대한 교리적 평가
2) 제34장의 반복되는 부분	IV. 1903년 수정안 채택의 결과
	V. 맺는 말

I. 문제 제기

신앙고백이란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를 체계화시켜 작성한 일종의 신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조는 성경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고 거짓된 교훈과 생활을 막는 데 있어서 공적 표준으로서의 방패가 된다. 특히, 신조는 자녀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실질적 교육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역사적으로 신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조를 갖는 모순을 지닌다는 점과 사상적으로 흥미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신조가 없이는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도저히 지켜나갈 수 없다."²⁾ 이러한 신조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교단(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은 1972년 9월 26일 제22회 총회시 웨스트민스터 신

1)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New York & London: Harper & Brthers publishes, 1919), p. 8.

2) Ibid., p. 9.

양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선포하였다.”³⁾ 이 일은 정말 대단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종교개혁 이후 125년간의 신학적 노력의 산물이며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결론이었다.”⁴⁾ 이것을 가리켜서 존 머티는 “개혁주의 신학은 1640년 대에 와서 100년 전이나 75년 전(칼빈의 사망시, 필자 주)까지도 기대할 수 없었던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⁵⁾고 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중요성과 의의와 항구적인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1972) 채택한 것은 17세기 당시에 작성한 신앙고백을 비교적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우리는 그뒤 1975년 9월 제25차 총회에서 제34, 35장을 원래의 고백서였다 첨가시켰다.⁶⁾ 오병세 교수님은 “이 신앙고백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숙한 표현이지만 18, 19세기의 선교운동과 아울러 새로운 강조점이 신앙고백에 삼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미국판에는 제34장에 「성령에 관하여」라는 장과 제35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라는 장이 첨가되어 총 35장이 되었다.”⁷⁾고 그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원래 1903년 미국 북장로교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에 의해 채택되었고 1942년에는 남장로교 총회가 그것을 채택해서 그 고백서의 제9장과 제10장의 위치에 두었는데 제10장은 “복음에 대하여”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였다.⁸⁾ 그런데 이 첨가된 부분이 꼭 필요한지 또 원래의 고백서와 동등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 지는 모를 일이다.

본고에서는 1903년에 채택된 제34장, 제35장의 역사적 배경과 그 채택의 의의를 알아보고 첨가된 부분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힐 것이다.

3) 오병세, “고려파 신학의 정립문제”, 「순교정신 계승하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7), p. 36.

4)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5), p. 127.

5) J. Murray,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Calvinistic Writings*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6), p. 317.

6) 제34장과 제35장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제25차 총회기간 중(1975. 9. 25-30) 채택되었지만, 총회회의록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7) 오병세, op. cit., p. 36. 비교, Y.J. Kim, *Der Protestantismus in Korea und Die Colvistische Trabition*, (Frankfurt an Mein, Bern. Cirencester/U.K.), P. 152.

8) George S. Hendry, *The Westminster Confession for Today: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London: SCM Press LTD, 1960), p. 116.

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 35장이 작성된 배경과 경위

미국 장로교회의 첫 노회는 1706년에 조직되었는데 그 노회의 7인 목사 중 6명은 스코틀랜드 계 또는 스코틀랜드계의 에이레 사람이었다. 장로교 첫 대회(General Synod)는 1716년에 조직되고 1729년에 유명한 “채택 법규(Adopting Act)”가 통과되었다.⁹⁾ 19세기 정통주의가 식민지(미국)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합리주의의 경향에 위협을 받게 되자 스코트-아이리쉬 노회는 모든 목사들과 목사 후보생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뉴잉글랜드파의 목사들은 이런 종류의 신학적 제한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래서 이 채택 법규를 통과시킬 때 타협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 채택 법규는 모든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 문답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만일 어떤 목사가 그 중의 일부분을 받지 않을 때 그는 자신이 거절하는 부분을 진술해야만 했다. 그리고는 임명위원회는 그가 거절한 부분이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에 매여 있지만 그 고백이 도전을 받을 여지는 처음부터 남겨 둔 셈이다. 즉,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하는 이 애매한 표현 때문에 교회는 두고 두고 곤혹을 치르게 된다.¹⁰⁾ 그러니까 목사들이 받기를 거절하는 부분이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이지 못한 부분을 담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처음부터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1741년~1758년 까지 계속된 신파(New Side)와 구파(Old Side)간의 분쟁은 1958년에 양자가 재통합함으로써 종결되었는데 그 통합의 근거는 다행스럽게도 양자간에 극단적인 이탈을 제거하고 공통적인 칼빈주의적 유산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양자의 진짜 칼빈주의적 갈등은 통합된 교회속에서 일어났던 것이다.¹¹⁾ 외적인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신학의 본질적인 통합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788년 장로교 총회(The General Assembly)가 조직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새로운 공식적인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은 대단한 의의를 지니는 일이었다. 그 다섯가지 질문중에 처음 두 질문은 (1) 그대는 친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

9) 이근삼, op. cit., p. 135.

10) Lefferts A. Loetscher,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7), p. 2.

11) Ibid., p. 3. 비교, 이근삼, op. cit., pp. 135, 136.

가? (2) 그대는 이 교회의 신앙고백을 성경에서 가르친 교리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진지하게 받고 채택하는가? 이다.¹²⁾ 이 질문은 그 뒤 수세기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의미없는 질문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1967년의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경의 정경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시하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이다.¹³⁾

1801년에 교회의 교리적 불순이 시작된 실례가 나타난다. 그것은 컨넥티컷주의 연합 총회(The General Association of Connecticut)와 미합중국 장로교 총회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연합의 계획을 채택한 것이다. 이 계획의 조건에 의하면 장로교 목사가 회중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고 회중교회의 목사도 장로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중은 장로교회 아니면 회중교회 정치 형태를 따라 권징을 행해야 했다. 그런데 이 때 Hop-Kinsianism이 들어왔는데 이 사상은 인간이 아담과의 관계 때문에 부패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¹⁴⁾ 1837년 구학과(Old School)와 신학과(New School)가 분리될 당시 소집된 총회에서 구학파는 1801년의 '연합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1801년의 연합 계획의 합법성이 공격을 받은 반면에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탈했다.¹⁵⁾ 이 교리적인 실수는 주로 아담속의 인간의 죄와 속죄와 선택과 중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있었다.¹⁶⁾

남북전쟁으로 인해 신학과와 구학과는 그들의 교리적 차이점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1869년 이 둘이 연합하게 된다. Edwin은 이 사건을 이

렇게 평가한다. "이 두 그룹이 교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 연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연합은 장로교 역사상 비극적 사건 중의 하나였다."¹⁷⁾고 한다. 나아가서 그는 그들의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신학과 신학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¹⁸⁾ 결국 Edwin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수정은 주관적이고 자유주의적 경향을 지닌 신학과와의 연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처음 그 고백서를 채택할 때 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1889년 북장로교 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는 본격적인 수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5개의 초회가 그 교회의 고백서의 일부를 수정할 것을 제의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우리 목사들과 교인들의 많은 의견에는 우리의 신앙고백서 중 일부의 진술 형식이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어서 우리 교리 체계가 부당한 비평을 받기 쉽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서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런 수정에 대한 일반적인 열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노회들에게 제의할 것을 결정한다. 1) 그대는 신앙고백서의 수정을 원하는가? 2)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항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인가?"¹⁹⁾라고 되어 있다. Philip Schaff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1889년의 총회는 미국신학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옛 칼빈주의는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미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신학과 고백을 필요로 한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조에 있어서 기독교의 재연합 말이다."²⁰⁾ 교회사가인 그는 이 수정을 위한 결정을 교회 연합의 차원에서 찬성하는 것 같다. Briggs는 아예 새로운 신조를 요구하고 있고 Francis L. Patton, De Witt, Charles Hodge와 A.A. Hodge는 수정을 반대했다. 그러나 수정에 대한 주장자인 Henry, J. Van Dyke는 당시 고백에 대해서 세가지 원칙적인 반대를 제시했다. 그것은 "유아 선택이란 표현이 들어있는 유기교리와 하나님의 보편적 준비에 대한 선포한 진술의 결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로운 시여"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그 고백서가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하지만 슬프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무한한 사랑에 관한 보충적인 진리를 무시했다고 비난

12) Ibid., p. 4. 비교 이근삼, op. cit., p. 136.

13) J.B. Rogers,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Kampen: J.H. Kok N.V., 1966) pp. 20, 21. Jame D. Start는 "1967의 고백서와 성경"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원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 증거를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오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성경말씀이 몇번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라." 이 고백서의 사상은 K. Barth의 "성경은 계시의 증거"라는 표현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1967년부터는 서명을 하지않고 다른 형식의 질문에 서약해야 했다. 즉, "그대는 친구약 성경을 공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있는 증거인 것과 그것이 그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God's word)임을 인정하는가?"이다.

14) Rian Edwin, H. *The Presbyterian Conflict*, (Grand Rapids, Michigan: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pp. 14, 15.

15) Ibid., p. 15.

16) Ibid., pp. 15, 16.

17) Ibid., p. 16.

18) Ibid., pp. 16, 17.

19)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 1889, p. 79. 비교 Loetscher, op. cit., p. 41.

20) L.A. Loetscher, op. cit., p. 42.

했다.”²¹⁾ 이런 다양한 견해가 토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 후 1890년의 총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신앙고백의 수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²²⁾ 그 때 임명된 25인의 수정위원회는 다음 총회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1892년에 모인 총회는 “여기에 추천된 변경사항이 수가 많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것도, 본 위원회가 판단할 때, 그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개혁주의적 혹은 칼빈주의적 교리체계의 순수성을 어떤 식으로든 손상시켜서는 안된다.”²³⁾고 했다. 1892년 총회는 수정위원회가 작성한 변경 사항들을 각 노회에 보냈다. 그 때에 거기에는 동 위원회가 수정을 위해 추천하는 고백서의 장(章)들 뿐만 아니라 덧붙인 장(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도 있었다.²⁴⁾ 그러나 1893년 총회에서 이 수정안은 2/3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되고 말았다.²⁵⁾ 이 때 신앙고백 수정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Francis L. Patton과 B.B. Warfield와 같은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C.A. Briggs에 대한 이단적인 재판 때문이었다.²⁶⁾ 이러한 수정 논의에 대해서 A. Kuyper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유와 그 위험성에 관한 긴 글을 썼다. 거기서 그는 그 수정이 신앙고백의 칼빈주의적 강조점을 풍부하게 하고 펼쳐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는 그 시대적 위험성을 묘사했다. 그는 그 글을 결론 지으면서 바로 이것이 필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그런 수정을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느끼는 이유이다. 만일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시된다면 말이다.”²⁷⁾라고 진술했다.

비록 신앙고백의 수정은 무산되었지만 수정된 칼빈주의를 믿는 자들과 성경을 좀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 교회의 표준서를 수정하기 위해 싸웠다. 그 교단의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New School)신학에 뿌리를 둔 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²⁸⁾

1900년 다시 19개 노회는 총회에 새롭고 더 짧은 신조를 작성할 것을 제의하는 반면에 6개 노회는 신앙고백의 수정과 새로운 신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 중에 어느 한 쪽이든 지지하는 노회를 모두 합하여 수정을 원하

21) Ibid., p. 43.

22) Ibid., pp 43-46.

23)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892, p. 130.

24) Ibid., pp. 128-138.

25)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893, pp. 177, 178.

26) R. Edwin, H. op. cit., p. 18.

27) A. Kuyper, “Calvinism and Confessional Revision”, *Presbyterian and Reformed* II, (July, 1891), 재인용 Rian Edwin, H. op. cit., p. 24.

28) R. Edwin, H. op. cit., p. 18.

는 노회는 38개 노회에 달했다.²⁹⁾ 총회는 또다시 15인 위원회를 임명해서 그 문제를 연구하고 다음 총회까지 각 노회에서 추천받은 수정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 때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B.B. Warfield도 그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해 버렸다. 그가 이를 평가하길 “교회가 늘 변하는 세상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의 증거를 약화시키려는 헛된 시도에 자신의 정력을 소모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다.”³⁰⁾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노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수정작업은 관철될 수 밖에 없었다.

1902년 수정위원회는 세 가지의 조항을 세지했는데 그 중에 세째 조항의 고백서 3장, 10장3항, 16장7항, 22장3항, 25장6항을 수정할 것을 추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즉, 선교와 성령에 관한 부가적 진술로써 교회의 정신을 보다 더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선언문을 채택할 것을 추천하는 항목이었다.³¹⁾

드디어 1903년 총회에서 이를 표결에 붙인 결과 모든 수정안(11개안)은 통과되었는데 ‘성령에 관하여’는 찬성 218, 반대 7로 통과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해서’는 222대3으로 통과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정된 사항과 첨부된 새로운 내용도 미국 북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의 교리적 표준서가 되었다.³²⁾

이 단락에서 미국 장로교의 신조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역사적 개요를 통해 신앙고백서를 수정하게 된 몇 가지 원인을 알 수 있다.

- ① 처음 채택할 때부터 고백의 일부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 ② 신앙고백 내용에 일치할 보지 않고 교회 연합을 이루었다.
- ③ 원리보다는 상황을 중요시한 결과로 신학과(New School)의 성격을 지닌 대각성 운동과 부흥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수정의 내용은 1890년에 제시된 것보다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그 수정은 신학과(New School)의 승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신앙고백에 대한 칼빈주의적 강조점을 결정적으로 누그러뜨렸음을 뜻한다.³³⁾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해 점검해 봐야겠다.

29)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900, pp. 98, 99.

30) B.B. Warfield, *Revision or Reaffirmation* (Princeton, 1900), pp. 54. 재인용 L.A. Loetscher, op. cit., p. 83.

31)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902, p. 87.

32)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903, pp. 123-128.

33) R. Edwin, op. cit., p. 19.

I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 35장에 대한 평가

당시 신앙고백의 수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지 원래의 신앙고백서가 성경의 교리체계를 만족할 만큼 훌륭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 수정안에서 특별한 구체적인 교리적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B.B. 워필드는 고백서의 수정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그 수정안의 표현을 지적했지 교리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그는 말하길 “그 수정안에는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고 똑바로 표현된 문장은 거의 없다. 왜 위대한 교회가 느슨하게 표현한 문장을 교회의 신앙고백의 부분으로 채택해야 하는가?”³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이후에 이 부분이 교리적인 변경이 아니라 교리적인 확장이었다고 했다.³⁵⁾

그렇지만 우리는 당시 첨가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제34장 ‘성령에 관하여’

1) 제34장의 내용 분석

‘성령에 관하여’라는 장은 모두 4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항목—성령의 기원,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둘째항목—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즉, 우주적, 윤리적, 성경의 영감, 복음전도에 대한 것

셋째항목—성령의 구속적인 사역, 즉, 개인적인 구원에 있어서의 그분의 사역

넷째항목—성령의 교회에서의 활동, 즉, 교회는 그분의 사역으로 설립, 양육, 확장되고 온전해진다.³⁶⁾

이 내용은 성령에 대한 칼빈주의적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 첨가되었다는 내용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분류한 모든 것은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단지 그것들을 한군데 모아서 정리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정도 반복되어 있는 지를 검토해 보겠다.

34) L.A. Loetscher, op. cit., p. 88.

35) B.B. Warfield, “1903 Revis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in *Select Shorter Writings II*,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80), pp. 394-400.

36) Ibid., p. 384.

2) 제34장의 반복되는 부분

① 제1항

“삼위일체 중의 제3위가 되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 부터 나오시며 본체는 같으시며 그 능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The Holy Spirit, the third person in the Trin,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of the same substance and equal in power and glory.)는 제2장 3항과 내용상 일치한다. (In the unity of the Godhead there are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성부, 성자와 더불어,³⁷⁾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으신다.”(is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 to be belived in, loved, obeyed, and worshiped throughout all ages)는 표현은 제21장 2항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Religions worship is to be given to God the Father, Son and Holy Ghost; and to him alone) 그리고 제34장 제1항에 사용된 단어는 약간 보충 설명하는 단어로 대치했다. “하나의”(one)를 “같은(same)” “동등한(equal)”로 표현했으며 성령께서 믿음과 사랑과 복종의 대상이라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제2항

“그분은 생명의 주시요 시여자시다.”(He is the Lord and Giver of life)는 좀 독창적이고 비교적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4장 1항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이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 속에 어디든지 계신다.”(everywhere present in nature)는 일반적인 성령의 속성에 해당하는 말로서 문맥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제10장 제3항에도 같은 속성이 나타난다. (the Spirit, who worketh when, and where, and how he pleaseth). 또 “사람 속의 모든 선한 생각과 순수한 소원과 거룩한 권고의 원천이시다”(and is the source of all good thoughts, pure desires, and holy counsels in men)는 제15장(선행에 관해서)에 대해 근원적인 것을 묘사하지만 제15장 제3항의 표현은 이를 내용상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Their ability to do good works is not at all of themselves, but wholly from the spirit of Christ …there is required an actual influence of the same Holy Spirit to work in them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그 다음에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1장의 제1, 2, 5항의 내용을

37) 우리 교단 헌법(1985년 수정판)에 실린 신앙고백 제34장 제1항에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계시며”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오역이다.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Son 뒤의 “,”를 보아 이것을 “성부, 성자와 더불어”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간추려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복음의 경론과 관계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과 관계된다(제8장 8항).

제2항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항목보다는 새로운 표현이 많이 있고 앞의 내용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규정하는 부분도 더러 있다고 보겠다.

③ 제3항

B.B. 워필드는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세째 항목은 그 고백서의 핵심을 이루는 구속의 적용에 관해 계속되는 여러장(Chaps. X-X VIII)에서 그 고백서가 아주 상세하고도 지극히 풍부하게 진술한 바를 매우 압축해서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³⁸⁾고 평가한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말인 “성부께서 자기에 구하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주시려고 하는 성령”(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is ever willing to give to all who ask Him)은 새로운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머지 문장은 앞의 내용을 요약 또는 반복하고 있다. “구속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역할자이다”(is the only efficient agent in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는 말은 구원론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하나의 명제(proposition)로서 적절하게 묘사했다고 하겠다. “그는 사람이 죄를 깨닫도록 하여 그들이 회개하도록 감동시키고”는 내용상 제10장 2항을 반복하고 있고 “그의 은혜로 그들을 중생시킨다”는 성령의 사역도 문맥은 다르지만 같은 사역을 하시는 것을 제10장 3항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도록 설득하시며 또 받아 들이도록 하신다. 또 그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에게 연결시킨다.”는 내용은 제10장 4항과 제13장 3항에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령의 역할은 잘 보여주고 있다. “위로자와 성화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속에 거하신다”(dwells in them as their Comforter and Sanctifier)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뜻하는데 제17장 2항에 “성령의 내주”(the abiding of the Spirit)가 있고 또 제13장 1항에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Spirit dwelling in them)³⁹⁾이 있다. “위로자”가 되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제17장 3항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받은 위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표현(their graces and comfort)이 있고 또 제13-18장의 내용이 위로의 성령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성화자”는 제13장 1항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된다”(are farther sanctified … by his word and Spirit), 또 제2항에 “성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the sanctifying Spirit of

38) B.B. Warfield, op. cit., p. 384.

39) 우리 교단헌법(1985)에 있는 신앙고백 제13장 1항에는 “그 동안에 있는 그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인쇄된 것이다.

Christ)이라고 표현한다. “양자의 영과 기도의 영”(the Spirit of Adoption and Prayer)이라 했는데 이 말은 애매한 표현이다. 이 글을 그대로 번역하면 “양자와 기도의 정신”으로 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성경내용과 맞지 않다. 양자의 영과 기도하시는 영은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대문자(the Spirit)로 써야 할 것이다.⁴⁰⁾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 영을 주신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 부분은 어느 쪽을 취하든지 분명치 못한 내용이다. 이 항목의 마지막 문장은 앞부분에서 여러번 나온 익숙한 내용이다. “구속의 날까지 신자들을 성화시키고 인치시는 그 모든 은혜로운 직무를 행하신다.”(and performs all those gractous offices by which they are sanctified and sealed unto the day of redemption)는 제12장 1항과 제18장 2항과 관련되어 있다.

④ 제4항

이 부분은 교회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우주 사상은 제26장 1항과 제25장 1, 2항에 잘 나타나 있고, 성령과 직분 또 그 효력과의 관계는 제25장 3항에 나타나 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는 제14장 1항에서도 언급하고 있다(The grace of faith … is the work of the Spirit of Christ, … and is ordinarily wrought by the ministry of the Word: by which also, and by the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prayer, it is increased and strangthened). 마지막의 교회의 순결은 제25장 4항에서 유추할 수 있고 교회의 확장은 제26장 2항과 관련된다.

3) 제34장의 특징

지금까지 제34장(성령에 관하여)의 내용이 원래 있던 신앙고백의 내용과 중복, 수정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모든 표현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인 줄로 알아서 사상의 단위로 대조했다. 위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덧붙여진 제34장의 분명한 특징이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보다는 신자개인의 측면에서 본 성령의 사역에 강조를 두고 표현했다는 점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해석을 조금 가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차이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신앙고백의 앞부분(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론, 교회론 등)과 다른 점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널리 흩어져 있는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40)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892, p. 132에 있는 최초로 작성된 수정안에는 “양자의 영과 간구의 영”(the Spirit of adoption nad of supplication)이라 했고 그 증거 본문(proof-text)은 로마서 8장 15, 26, 27절이다.

교리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칼빈주의적 교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B.B. 워필드는 제2항에서 성경의 영감에 관한 둘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 고백서에 없는 전혀 새로운 교리라고 한다. 즉 “일반은총”의 교리를 덧붙였다고 한다.⁴¹⁾ 성령께서 일반은총의 영역에 관여 하시는 것을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반 은총의 교리가 여기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제5장)은 일반 은총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진술의 내용은 정교하고 섬세하기 보다는 간결하고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성령에 관한 교리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2.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

1) 변경된 사항

이 장의 제목은 1892년 총회시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 당시 수정위원회는 이 부분을 “복음에 관하여”(of the Gospel)라고 했다. B.B. 워필드는 이 제목에 대해서 말하길 “물론 이 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선교’라고 알고 있는 바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에 대한 전개도 ‘선교의 교리에 대한 전개도 아니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 제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나아가서 그는 “이 장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고 전파하는 것으로 또 선교를 일으키는 것으로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는 ‘복음’에 관한 교리를 전개하고 있다.”⁴²⁾고 말한다. 그는 “복음”과 아울러서 외적인 부름”이란 전문 용어를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제목이 바뀐 것은 Henry van Dyke의 영향이 컸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수정한 작성 당시(1901) 위원이었고 채택시(1903) 수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수정에 대한 토론에서 고백서에 대해서 늘 주장해 온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⁴³⁾이란 주제를 그 제목에 넣기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처음 작성된 것과 제목만 다른 것이 아니고 한가지 더 첨부된 것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제1항에 “무한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in infinite and perfect love)⁴⁴⁾라는 말이 첨

41) B.B. Warfield, op. cit., pp. 386-388.

42) Ibid., p. 388.

43) L.A. Loetscher, op. cit., p. 43.

44) Minutes of General Assembly 1892, p. 123.

가되었다. 이말은 바뀐 제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 두가지가 동시에 변경, 첨가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같다.

2) 제35장의 내용 분석

첫째항목-복음의 근거를 제시한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그것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항목-복음의 내용을 제시한다. 즉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 정의를 진술한다.

세째항목-복음의 결과를 제시한다. 즉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것이다.

네째항목-복음의 의무를 제시한다. 즉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네 항목으로써 복음에 대한 교리를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주제는 제10장 “효력있는 부르심에 관하여”와는 반대 입장에서 서술한다. 즉, 제10장이 성령의 내적 부름을 설명한다면 이 장은 외적인 부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⁴⁵⁾ 이런 의미에서 이 장이 이 고백서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리적으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3) 제35장에 대한 교리적 평가

논쟁의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은 제1, 2항에 나타나는 보편 구원적인 뉘앙스를 가진 문장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은혜 계약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희생을 통하여 잃어버린 온 인류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복음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을 거저 주신다”(God, in infinite and perfect love, having provided in the covenant of grace, through the mediation and sacrifice of the Lord Jesus Christ, a way of life and salvation, sufficient for and adapted to the whole lost race of man, doth freely offer this salvation to all men in the gospel.).

말은 당시 채택된 선언문 속의 제3장에 관한 해설 부분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신앙고백 제3장에 간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조화있게, 전 세계의 죄에

45) B.B. Warfield, op. cit., p. 390.

대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그의 아들 즉 그의 선물과 조화있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와 조화있게 주장된다.”(With reference to Chapter III of the Confession of Faith: that concerning those who are saved in Christ, the doctrine of God's eternal decree is held in harmony with the doctrine of His love to all mankind, His gift of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nd His readiness to bestow His saving grace on all who Seek it.)⁴⁶⁾

이 진술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요3:16)과 그리스도께서 온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것(요일2:2)은 성경이 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그 표현이 나타난 성경의 의미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당연한 내용이다. B.B. 워필드는 여러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이 수정되고 첨가된 부분이 3장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⁴⁷⁾ 이 중에서 칼빈의 말을 인용하는데 “천부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The Heavenly Father loves the human race, and would not have them perish, on John iii:16)⁴⁸⁾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평범한 표현이다. 요한복음 3장16절에 관한 칼빈의 주석은 그렇게 느슨한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말하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그들의 눈에 열어 주신다.”(Christ is open to all and displayed to all, but God opens the eyes only of the elect that they may seek Him by faith.)⁴⁹⁾고 했다. 더 나아가서 디모테전서 2장 4, 6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을 지칭하지 않고 계층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⁵⁰⁾ 그러므로 본문의 의도와 문맥을 무시한 채 성경귀절을 인용해서 그 내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⁵¹⁾ 정말 제35장의 진술이

46)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903, p. 124.

47) B.B. Warfield, op. cit., pp. 378-380.

48) *Ibid.*, p. 378.

49) J. Calvi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trans. by T.H.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p. 75.

50) J. Calvi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by T.A. Smail,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p. 209, 213.

51)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1892, p. 133에는 만민구원에 대한 Proof-text 로 디모테전서 2장 4, 6절을 사용하고 있다.

제3장과 조화를 이룰려고 한다면 제3장과 제10장에 대한 수정에 준하는 재 해석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개혁신앙의 주장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은 속죄의 범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택자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⁵²⁾ 이런 전통적인 견해를 무시한 채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를 모든 인류에게로 넓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사역과 맞지 않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을 고쳐 놓았으니 그것들끼리는 맞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알미니안 주의의 보편 구원에 대한 논쟁을 일삼을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선언문을 포함해서 제35장의 내용이 희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의 배타성을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계획을 보편화시키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35장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애로움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⁵³⁾

Ned B. Stonehouse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실추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과 기독교와 복음의 핵심에 그리고 칼빈주의의 핵심부에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⁵⁴⁾고 말하면서 그 고백서 자체가 원래부터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한다. 존 머리는 그 선언문을 교회의 고백으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⁵⁵⁾ 그는 처음부터 수정 자체를 거절해 왔다. 그는 1788년 부터 시작된 수정의 진행에 대해서 “이런 수정안과 첨부된 것을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⁵⁶⁾고 일축해 버렸다. 특별히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에게는 당연한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여기서 1903년의 수정안이 채택된 이후 그 영향으로 생긴 결과를 보면 그 당시 수정의 의도와 그 교리적 성격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52) R. Edwin, H. op. cit., p. 20.

53) *Ibid.*

54) *Ibid.*, p. 21.

55) John Murray, “Shall We Include the Revision of 1903 in Our Creed?”, *The Presbyterian Guardian*, 1936, p. 251, 재인용, R. Edwin, H. p. 22. 필자는 이 논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왜 이 수정안을 고백으로 받기를 거부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56) John Murray,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ollected Writings, IV*,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p. 262.

IV. 1903년 수정안 채택의 결과

이 수정안의 채택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겠지만 그 여파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회 연합이었다. 1906년 미국 북장로교(The Presbyterian Church in USA)는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와 연합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하나님의 작정을 숙명의 교리라 하여 거기에 서명하지 않고 1810년 북장로교를 떠나 캔터키에서 성장해 왔다.⁵⁷⁾ 이 교파는 교리적으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혼합된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칼빈주의적 이라기 보다는 알미니안 주의적이었다.⁵⁸⁾ B.B. 위필드는 그 교파가 1883년에 전혀 새로운 고백을 취했는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가장 특색있는 성격을 하나도 담지않고 또 그 부차적인 특징까지도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을 만큼 그 고백서를 철저히 '개정'한 것이다.⁵⁹⁾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내던져 버리고 미국 북장로교가 신앙고백을 수정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북장로교가 십년이 넘도록 신앙고백 수정에 대해서 잠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주의깊게 관찰하며 관심을 갖고 있었다. L.A. Lootscher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지적하기를 "컴벌랜드 교회와 연합할 가능성은 신앙고백 수정의 행운의 부산물로 증명되었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1902년 장로교 총회가 수정안을 각 노회에 하달하자마자 컴벌랜드 교회의 신문과 노회와 지도자 별로 만일 이 개정안 채택된다면 이것은 장로교 신학에서 '숙명론'의 오점을 제거하고 재연합의 문을 열 것이다로 말하고 있었다"⁶⁰⁾고 한다. 그러니까 1903년의 고백서 수정은 이 재연합의 발판을 구축한 셈이다. 왜냐하면 믿는 바의 내용인 신앙고백이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사실만 보아도 1903년의 수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칼빈주의적 강조점을 크게 약화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수정의 결과가 이런 양상을 가져왔다면 그 연합의 결과는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합의 결과는 북장로교의 증거와 그 신앙고

57) J.B. Rogers, op. cit., p. 47.

58) R. Edwin, H. op. cit., p. 25.

59) J.B. Rogers, op. cit., p. 47. 사실 이 개정은 처음이 아니었다. 처음 컴벌랜드 장로교는 1814년에, 특히, 예정에 대한 걱정을 진술하는데서 그 고백과 요리문답을 수정했다. p. schaff, "Westminster Standards",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ns Knowledge* VII,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4.

60) L.A. Lootscher, op. cit., p. 95.

백의 칼빈주의를 약화시키고자 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신앙고백과 교회가 현대화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을 구축하게끔 도와주었다."⁶¹⁾ 이러한 영향은 1936년의 정통장로교의 형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통장로교는 첨가된 제34, 35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신앙고백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본 고를 맺고자 한다.

V. 맺는 말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볼 때 결론을 내리는 일은 쉽고도 간단할 것 같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신앙고백에 대한 수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그 고백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고안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 요구나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그 고백서가 함부로 또 시대마다 편리하게 수정 또는 확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처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될 당시에 쏟았던 열정과 세심한 배려가 수정시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편승과 교회 연합을 위해 신앙고백의 수정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보다 더 확고한 고백의 토대위에 교회가 연합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4장은 거의 대부분 앞부분을 반복하거나 좀 확대한 내용이다. 새로운 것이라곤 극히 적은 요소에 불과한데 이것을 위해 새로운 장을 만들어 첨가시켜 넣을 필요가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제35장은 함께 수정한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다소간 신학의 쟁점이 되었음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개혁주의 신학의 후퇴였고 또 그 결과는 역사속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 첨가된 부분을 채택할 때 이 모든 과정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적어도 이런 수정은 처음부터 미국 장로교 속에 있던 자유주의 사상의 포출이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원래의 신앙고백과 동일한 권위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 장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A. 카이퍼⁶²⁾와 존 머리⁶³⁾와 같이,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부록으로 풍부하게 첨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이 선진들

61) R. Edwin, H. op. cit., p. 26.

62) A. Kuyper, "Calvinism and Confessional Revision", 재인용 Rogers, p. 45.

63) J. Murray,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op. cit., p. 263.

로 부터 받은 아름다운 칼빈주의적 유산을 잘 지켜 보존하고 대대로 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한 터 위에서 더욱 힘있게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오병세, “고려과 신학의 정립문제”, 「순교정신 계승하자」(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7)

이근삼,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Calvin. John,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trans. by T.H.L Parker,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s Publishing Co 1974.

_____,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by T.A. Smail,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s Publishing Co, 1973.

Edwin, H. Rian, *The Presbyterian Conflic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Publishing Co, 1940.

Hendry, George So, *The Presdyterian Confession for Today: A Conntemporary Interperetation*, London: SCM Press LTD, 1960.

Kim, Y.J., *Der Protestanstantismus in Korea und Die Calvinistische Tradition, Frankfurt am Mein*, Bern. Grencester, U.K.

Loetscher, Lefferts A.,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sylvania Press, 1957.

Murray John,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Westminster Confession”, *Collected Writings*, Pensylvania: The Bauner of Truth Trust, 1976.

_____, “The Theology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Collected Writings* IV, Edinburgh: The Bauner of Truth Trust, 1982

Rogers, J.B., *Scripture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Kampen: J.H Kok N.V., 1966.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New York & London: Harper & Brothers, Publishes, 1919.

Schaff, Philip, “Westminster Standards”, *The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ns Knowledge* VII,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64.

Warfield, B.B., “1903 Rivis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Selected*

Shorter Writings II,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의록 제25차, 197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헌법」(1985년, 수정판)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dyterian Church in USA, 1889.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dyterian Church in USA, 1892.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dyterian Church in USA, 1893.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dyterian Church in USA, 1900.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dyterian Church in USA, 1902.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dyterian Church in USA, 1903.